



다문화 자녀의 진로 고민 해결 사례 알아보기

“이중언어 계발로 진로도 정하고 자신감도 커졌어요”

대학생 채OO씨는 어머니가 중국동포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사춘기 이후부터 주변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중언어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자신의 장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 외교관이 되겠다는 장래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OO 학생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7세에 한국에 온 중도입국 자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익히는 동시에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베트남어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을 뿐 아니라 OOO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세계일보, 2018. 5. 13.,
<이중언어 구사 강점…‘다문화 신세대’ 뜬다>,
충남일보, 2021. 11. 24. <이중언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의 꿈을 키우는 대전다문화가정 학생들>

진로 Tip 외국어를 학습하기 쉽지 않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다문화가정 자녀는 가정 속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언어 환경의 이점을 이용하면 직업세계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자녀에게 더욱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좋은 친구도 만나고 장래희망도 생겼어요”

중도입국 자녀인 OOO는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아리 활동 시간에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주제로 토론 자료를 찾다가 무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후 이 학생은 무역 분야에 대한 흥미를 발전시켜 관련 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OOO중학교 채OO 선생님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중도입국 자녀가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도움을 주고받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뒤에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참고: 중도일보, 2021. 11. 28.
<아프지만 따뜻했던 나의 한국 생활 적응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진로 Tip 오랫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지도한 현장 선생님들은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서로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동아리그룹 활동은 사춘기 자녀들이 또래와 교류하고 속깊은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Wee 상담을 통해 다시 일어섰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OOO군은 ‘다른 친구들은 대입 준비 때문에 바쁜데 나는 할 게 없다’며 무기력증을 호소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Wee센터는 적극적인 심리상담과 학부모 면담을 함께하며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OOO군의 학교에서는 Wee클래스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법 등을 지도하는 동시에 진로 흥미를 개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꾸준한 상담과 진로지도 끝에 OOO군은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했고 최종 면접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1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진로 Tip 2022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가 서툴 때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자녀에게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학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진로 한 걸음 더 우리 동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각종 진로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다문화교육지원 센터를 찾아가 자녀의 진로 고민에 대해 도움을 받아봅시다.

다문화교육포털(edu4mc.or.kr) > 정책 안내 >
유관기관 > 우리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검색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와 진학 이렇게 준비해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 입시 특별전형을 잘 활용해요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 입시 특별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따라 '고른기회', '기회균형', '사회통합' 등 전형의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을 포함합니다. 학부모의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외국어특기자 전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대학입시 정보는 학교별로 다르고 수시로 변동되므로 자녀가 희망하는 학과와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



자녀의 아픈 마음을 다톡이는 심리·정서·진로 지원 서비스 'Wee'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와 무기력 등 각종 심리·정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까운 'Wee 클래스' 혹은 'Wee 센터'를 찾아봅시다. 각 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그리고 주거공간이나 의료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는 'Wee 스쿨'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의 심리·정서발달을 돋는 상담체계가 전국에 구축돼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비나 방문 의료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wee.go.kr) > 상담 > 기관찾기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알아봅시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진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진로·진학 관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 (서울) 서울런(slearn.seoul.go.kr)
(경기)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more.goe.go.kr/da)
(대구)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edunavi.kr/multiculture)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liveinkorea.kr)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센터 소개 > 지역검색

※ 모바일 페이지 왼쪽 윗부분의 메뉴에서 언어 선택을 클릭해 언어를 변경 후 이용해주세요.



중도입국 자녀·난민 자녀의 진로 고민 '레인보우스쿨'에서 함께해요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문화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이 자신의 특장점을 찾고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rainbowyouth.or.kr)
> 정보·자료 > 브로슈어



교육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